진우 스님 "한국불교 중흥에 힘 모아달라"

담양 용흥사 백운 대강백 4주기 추모 다례재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행 · 포교에 적극 참여하면 세계 중심에 한국불교 우뚝"


6월 3일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된 백운당 지흥 대강백 4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대강백으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백운당 지흥 대강백(1934~2020)의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6월 3일 백운당 지흥 대강백 원적 4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백운당 지흥 대강백은 1944년 백양사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광주 서중과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의 상좌로 입실해 범어사 강원, 통도사 강원, 해인사 마산대학에서 수학했다. 이후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했으며, 동산 스님을 모시고 종단 정화 운동에 참여했다.

1971년부터 화엄사 강주, 범어사 강주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주력했고, 송광사 강원을 개원해 종단의 교육에 헌신했다. 또한 초의선사의 정통 다맥을 이어 서암선기, 쌍수일한, 응송영희, 백운지흥으로 이어지는 초의선사의 다법과 유품을 전수 받았다. 그 후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2020년 용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저서로는 한국불교사와 평양언기 선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쓴 〈양치는 성자〉와 〈임제록 연의〉 〈진묵대사〉, 〈초의선사〉 〈동산대종사〉 〈완당 김정희〉 〈만암대종사〉 〈성월선사〉 〈혜암종정〉 〈오세동자〉 〈인곡대선사〉,〈부설거사〉 〈연선도인〉 등을 집필했다.

이날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은 큰스님의 평소 덕망과 음덕을 추모하는 자리"라며 "오늘 대중의 원력으로 머무는 그 자리에서 평안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불교 중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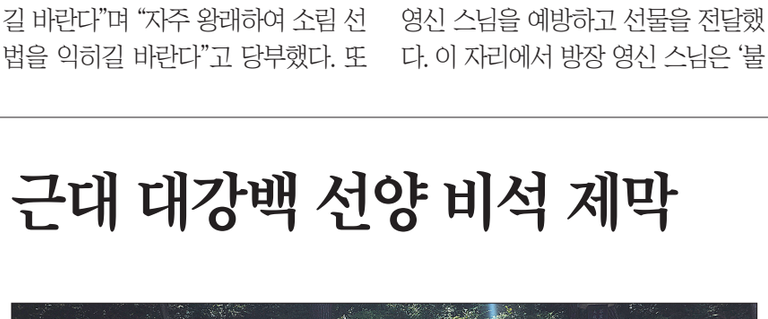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은사스님의 4주기 다례재를 맞아 찾아오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우리 종단은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종단 안정이라는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전 종도와 합심해 한국불교가 다시 한 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종단과 문도들이 수행과 포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불교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원로의원 성오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선암사 주지 대진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심우·오심·성행·삼조·설도·만당·우석·향문·허허·탄보 스님 등이 함께했다. 또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 스님들과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도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이 동참했다.

소림선종, 中소림사서 수계법회 봉행

5월 26일 금강유리계단서
전계대화상에 영신 대화상
종단 비구 10명 법명 받아


소림선종은 수계대표단을 구성, 중국 소림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종정 연화 스님)은 5월 26일 중국 숭산 소림사 금강유리계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전계대화상으로 소림사 방장 영신(永信) 스님이, 갈마아사리에 영복(永福) 스님, 교수아사리에 속발(续发) 스님 등 소림사 대덕스님들이 나섰다.

소림선종에서는 스님 10명과 재가불자 7명 등으로 수계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이미 소림사에서 법맥을 받은 제자 종정 연화 스님 외에 혜담, 효진, 월암, 천상, 법지, 청해, 도암, 혜국, 혜광, 보광 스님 등이 이번에 계를 받았고, 동참한 재가불자들은 거사증을 받았다.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수계법회 전날인 5월 25일 소림사 초대소에 도착, 26일 소림사 입적 서류를 접수한 후 법의(가사, 장삼)를 받았으며, 5월 26일 오후 1시 30분 소림사 전통 수계계단인 금강유리계단에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를 받았다.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소림 종도가 되었으니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자주 왕래하여 소림 선법을 익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영신 스님은 '신동심부동(身動心不動)'을 강조하며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몸은 움직여도 불심의 마음은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수계법회 후 소림사 참배 후 소림사 연무장에서 무승들의 수행을 살펴봤다. 이어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을 예방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방장 영신 스님은 '불(佛)'과 '선(禪)' 휘호를 소림선종에 전달했다.

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은 "소림선종은 초조 달마대사께서 선풍을 일으킨 소림사 선풍은 이어가고 있다"며 "신기에 가까운 무술과 소림사 약방의 신묘한 영약, 소림사 선방의 700여 선승들의 모습을 보며 정진에 원력을 세우게 된다. 소림을 알면 수행자는 스스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법문했다.

한편,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수계법회 후 5월 26일 달마대사가 2년간 머문 웅이산 공상사를 참배했다. 공상사에서는 종정 연화 스님 사형제인 주지 연자(延慈) 스님 등이 나와 대표단을 맞이했다. 공상사는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을 위해 진사(닭의 피가 섞인 모래)로 빚어진 달마대사좌상 1점 등을 선물했다. 이어 5월 27일 백마사를 참배하였으며, 28일 용문석굴, 29일 황하 등을 둘러보고 귀국길에 올랐다.

노덕현 기자

순창 구암사, 근대 대강백 선양 비석 제막

석전 · 운기 스님 비석 제막식
백파선사 172주기 추모다례도


한국불교의 대강백 석전당 영호 대종사 불망 유허비와 운기 대강백비 제막식이 순천 구암사에서 열렸다.

순창 구암사(주지 지공 스님)가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석전당 영호대종사 불망 유허비와 운기 대강백비 제막식을 열었다.

구암사는 5월 31일 화엄종주 백파긍선 대율사 172주기 다례재와 석전당 영호대종사 불망유허비, 운기대강백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또 운기대강백의 행장기를 담은 '독보건곤' 봉정식도 진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 운기문도 문장 혜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대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 부산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전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정읍 운주사 주지 성락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선운사 부주지 운천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24교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제막식 후에 전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성원당 운기대강백의 행장를 기록한 '독보건곤'을 봉정했다.

선운사 원로 대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의 큰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등불이자, 역사인 석전 스님과 그 뒤를 이은 운기대강백의 비를 제막하게 됐다"며 "오늘은 석전 스님과 운기 스님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 동참한 대중스님은 백파 스님을 비롯한 조사스님들의 부도전에 헌다하며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그동안 여러 어른스님들에게 석전 스님과 운기 스님을 비롯한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해 들으며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다"며 "어른스님들의 큰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해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도 "백파긍선 대종장의 다례재를 맞아 법맥과 강맥, 율맥을 이어온 석전 스님과 운기 스님의 추모비 제막과 운기대강백의 행장기 '독보건곤'의 증보판 봉정식을 갖게 돼 더없이 영광스럽다"며 "구암사는 한국불교의 법맥과 강맥이 흐르는 여러 큰스님들의 염원과 학문적 열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을 가진 석전당 영호대종사비는 전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이 비문을 쓰고 부산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이 근서했다. 운기대강백비는 문손 재선 스님이 비문을 쓰고 전종주 선생이 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불교 중흥 경허 선사 유훈 되새기자"

수덕사, 경허 선사 열반 112주년 추모 다례재



근대 선불교의 중흥을 이끈 선지식 경허 성우 선사의 유훈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5월 31일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 선사 열반 11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전 총무원장 송원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김종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정 대종사는 "경허 선사는 수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불교의 선맥을 다시 되살려 중흥시켰다"며 "선사의 발자취와 유훈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허 선사는 1894년 태어나 9살에 청계사로 출가했다. 동학사에서 스승 만화 보선을 이어 강사로 활약했으며 견성 후에는 무애행으로 세상 속에 녹아들었다. 만공 월면, 수월 음관, 혜월 혜명 이른바 '3월(三月)'로 불리는 걸출한 제자들을 비롯해 혜봉, 침운, 한암, 제산 등을 길러내어 오늘날 한국불교 승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1912년 세랍 64세, 법랍 56세로 입적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임원대회 봉행

6월 1일 칠곡 각황사서



(사)세계불교교황청(청장 석능인 스님)이 6월 1일 칠곡 각황사에서 임원대회를 봉행했다.〈사진〉

세계불교교황청장 석능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불교교황청은 많은 종단의 통합을 위해 5년 전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며 "미얀마, 태국, 네팔 등 외국 종단을 비롯해 28개 종단, 800여 스님들이 가입돼 있다"고 소개했다.

보궁사 주지 법성 스님은 세계불교 각 승단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교황청기를 석능인 스님에게 봉헌했다. 이어 대법황 향덕 스님은 도일문도회장 대봉 스님, 능인문도회장 인연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능인 스님은 수불사 무초심 법사, 보궁사 법성 스님, 금강사 증명 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대표이사 대원행, 상임이사 원산 스님 등 이사와 대의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대법황 향덕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의 초종파를 초월해 힘든 이웃을 살피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한다"며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큰 뜻을 피워내어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진정한 불교문화가 정착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수 운동에 감사

관계자 초청해 사찰음식 대접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6월 4일 경내 앞마당에서 사찰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과 지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찰음식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지 원우 스님은 "그동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석사와 지역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고, 마음에 고향 같은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용주 신도회장은 "그동안 힘써주신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환지본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부석사 조실), 유희열 조계종 포교사단 홍보전문위원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각원사 불교대학 제22기 졸업식 개최

5월 26일 93명 졸업생 배출



교육 포교 도량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5월 26일 불교대학 제22기 졸업식 및 경해학당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각원사는 불교대학 졸업생 93명과 경해학당 수료생 184명을 배출했다. 특히 졸업생 가운데에는 이재관 국회의원과 문진석 국회의원의 부인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인 대종사는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대원 대종사는 "불교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는 포교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졸업생과 수료생은 불교대학과 경해학당에 약 11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